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01)

학술조사 등 시작... 실체규명 나섰다  
1백회 특집(下) 아픈 역사현장 조명 본격화

입력 : 2008. 05.08. 00:00:00



▲제주시 사라봉에 구축된 일본군 동굴진지 내부. /사진=이승철기자

## 탐사보도 이후 정부·지자체·학계 등 관심 역사적 중요성·세계유산적 가치 주목해야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시작됐다. 제주자치도와 문화재청 차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일본군 동굴진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부터 처음으로 학술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군 주둔과 군사시설의 역사적 배경 및 구축과정 등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학술조사를 토대로 일본군 군사시설의 역사적·현재적 의미와 앞으로의 보호 정비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처럼 2005년부터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주둔 일본군 및 거대 군사시설에 대한 탐사보도가 본격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달라진 움직임이다. 또한 학계 및 학술단체에서 이를 조명하는 보고서와 세미나 등이 잇따라 개최되는 등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관동군 출신인 가미키 사토루씨(왼쪽 두번째)가 군사전문가인 츠카사키 마사유키씨(왼쪽)와 함께 취재팀의 안내로 당시 동굴진지를 구축했던 굽은오름 진지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제1부 '알뜨르비행장에서 오키나와까지'를 통해 집중 조명한 모슬포 등 제주 서남부 일대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제주도의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재청은 2006년 11월 모슬포 송악산 동굴진지 등 등 12곳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이어 올해부터 일본군 군사유적이 집중돼 있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역사문화 관광벨트화 하고, 일제 군사유적을 집중 소개하는 '알뜨르, 그 아름다움속의 낯설음'을 펴내기도 했다.

제주도에서는 오는 2015년을 목표로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사시설을 역사문화자원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한라수목원 일제 군사시설은 지난해 제주도 차원에서 조사보고서를 펴내고 이를 토대로 올해 보호정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과거사 위원회와 학계 및 학술연구단체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일제군사유적 조사 보존을 촉구하는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워크숍이 열려 학계 등의 관심을 모았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에서는 취재팀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일본군 군사시설과 강제동원 실태 등을 담은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병력 동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이는 정부차원의 과거사 위원회에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노무동원과 군사시설 실태를 담은 첫 공식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를 비롯 관련 학자들도 취재팀의 집중 탐사한 제주 서남부 일대에 대한 연구논문을 펴내는 등 학술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서는 2006년 12월과 2007년 7월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일제군사시설의 중요성과 조사 보존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일제 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과 7만5천여 대병력의 주둔실태에 대해 학계와 학술연구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측 학자와 민간단체의 움직임도 관심을 끌고 있다.츠키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등 일본 학자들도 그동안 취재팀과 함께 수차례 제주도 현지조사를 벌인데 이어 내달 하순에도 세미나와 함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일본 히로시마현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근무 교직원들로 구성된 히로시마교직원조합도 지난해부터 탐사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제주 현지 답사에 나서고 있다. 올해 역시 8월에 제주를 방문 취재팀과 함께 동굴진지 등 일제 군사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일본 '마쓰시로대본영보존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제주도의 일본군 군사시설을 둘러보며 전쟁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펴고 있다.

일제가 본토결전에 대비 옥쇄작전을 위해 구축한 군사시설은 아픈 역사현장을 넘어 '다크 투어



리즘'(Dark Tourism)의 상징적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당국차원의 학술조사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의 역사적 중요성과 세계전쟁사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앞으로 탐사보도 방향은? ]

### 제주 서북부·동부지역 등 긴 여정

#### 다음달 일본 현지 비교 조사 예정

특별취재팀의 탐사는 앞으로도 긴 여정이 남아있다. 우선 이달부터 일본군 108여단 6천여 병력이 주둔했던 제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탐사에 본격 나선다.

이어 121사단 1만3천명이 주둔했던 제주 서북부지역에 대한 탐사가 예정돼 있다. 96사단과 마찬가지로 108여단과 121사단에 대한 조사연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하치마끼'(鉢巻 · 머리에 두르는 띠)도로에 대한 탐사도 예정돼 있다. 하치마끼도로는 한라산 중허리를 돌아가며 만든 도로가 마치 '머리띠를 두른 것과 같은 형국'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취재팀은 제주도내에 대한 탐사와 함께 내달 초 일본 현지조사에도 나선다. 2005년에 이어 두 번째 비교조사로 '결6호 작전'지였던 일본 규슈(九州) 일대를 찾을 예정이다. 일본 규슈 일대는 미군 등 연합군의 일본토 공격을 위한 유력 상륙예상지로 꼽혔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자살특공정진지와 군사비행장 등이 잘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재팀은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의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보존 정비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